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한모. 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병준. 바오로 217-352-2487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송돈희. 요셉 916-201-9859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 제1독서 | 사도행전 13:14.43-52 | 제2독서 | 요한묵시록 7:9.14-17 | 복음 | 요한 10:27-30

◎말씀 < 소명(召命)의 삶 >

오늘 성소주일입니다. 성소(聖召)는 ‘하느님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이후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안에 살아가고 있는 평신도들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면서, ‘성소’라는 말을 성직과 수도자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평신도의 삶에 대해서도 ‘성소’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는 ‘성소’는 성직자, 수도자 성소를 말합니다. 성직자 수도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믿음이 가톨릭 안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은 지엄하여 이를 결코 거절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성소(聖召). 곧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가정’은 ‘성소의 못자리’입니다. 사제와 수도자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제와 수도자가 배출되는 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성소의 못자리’라고 합니다. 주교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느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주교님들이 부모님이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성소의 동기는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되며

성소의 싹은 가정과 부모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뜻이 있는 부모님들은 성실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성소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이끌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자녀중에 사제나 수도 생활에 뜻을 두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그 뜻을 존중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소의 뜻을 막지말아야 합니다.. 자칫하면 하느님의 뜻을 거스릴 수도 있습니다.

‘본당 공동체’도 ‘성소의 못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물질이 주는 온갖 편리함 속에 살아가고, 또 무엇보다 물질의 가치를 중히 여기는 세상 흐름 속에, 그리고 타인과 공동선에 대한 무관심과 오로지 자신의 영달과 성공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세상 흐름 속에, 보다 높고 숭고한 가치 곧, 공동선과 최고의 가치인 하느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자신을 봉헌하는 삶은 보다 가치 있을 것입니다. 보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성소의 못자리가 되어 성소자가 배출되고, 본당 공동체 차원에서도 성소자가 배출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소 주일을 맞이하여, 하느님께서 왜 우리 각자를 부르셨는지 헤아리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 일 자 | 전 레 력 | 미사시간 | 우리들 정성(지난주) | |
|------------|---|----------------|-------------------|--------------------------|
| 5월 14일(화) | 성 마티아 사도 축일 | 오후7시30분 | 교무금 주일헌금 | \$ 3,690.00 \$ 972.00 |
| 5월 15일(수) | 부활 제4주간 수요일 | 오전7시30분 | 미사예물 성소후원 | \$ 540.00 \$ 190.00 |
| 5월 16일(목) | 부활 제4주간 목요일 | 오후7시30분 | 사회복지 성물방 | \$ 180.00 \$ 116.00 |
| 5월 17일(금) | 부활 제4주간 금요일 | 오후7시30분 | 사순저금통(1차) 주일학교 | \$ 944.00 \$ 0.00 |
| 5월 18일(토) | 부활 제4주간 토요일 | 오전10시30분 | 합 계 | \$ 6,632.00 |
| 5월 19일(일) | 부활 제5주일 | 오전 9시 오전11시 | 미사참례자 | 아동: 27명 성인: 182명 |
| 교무금 봉헌자 | 김순녀. 이강덕(5-6월)이운상(4-6월)정진욱(4-5월)김현준(1-2월)장신자(3월)김평옥. 전정옥. 안선미(4월)김규철. 윤재경. 김은영. 김계숙. 이상인. 구준모. 성영진. 박원상. 김운태. 허형. 안강순. 김규대. 이수동. 박용호. 김양순. 황호민. 김길록. 장대석. 이원건. 박재례. 엄용덕. 안기창. 김영숙(5월) | | | |

◎신앙생활(본당의 새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집.동네의 샘입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

헨리 나웬 신부가 지은 <아담>을 하느님의 읽으면서 하느님의 현존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예일대학을 거쳐 하버드대학 신학 교수로 있으면서 많은 저술을 남긴 나웬 신부는 어느 날 모든 것을 버리고 ‘라르슈 공동체’로 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담’이라는 중증장애자를 돌보게 되었다.

‘아담’과 함께 살면서 그는 처음으로 “하혈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으리라” (마태9,20-21)는 성서 말씀을 깨달았다고 한다. 친구들은 이런 나웬 신부의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다. 당신은 수많은 강연과 저술로 사람들을 인도해 왔는데 어째서 이런 곳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느냐, 오히려 이런 일은 봉사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충고를 했다. 그러나 그는 ‘아담’을 돌보면서, 이를 닦아 주고, 세수를 시켜 주고, 밥을 먹여 주면서 바로 예수님의 몸을 만지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 ‘아담’이 죽은 후엔 신앙고백서 <아담>을 남기고는 곧 그의 뒤를 따라갔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스스로 되문게 되었다. 이 책은 나를 정화시켜 주었고, 관념적이던 내 신앙을 뿌리째 흔들었다. 과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또 무엇을 찾고 있는지... 혼란 속에서 다가온 것은 그의 진솔한 사랑이었다. ‘아담’은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무엇을 해주든 감사의 표현마저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 이었다. 그런데 ‘아담’을 돌보면서 나웬 신부는 몇십년에 걸쳐 연구해 온, 그리고 수많은 저술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자부해 온 그 모든 일들이 아무 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나웬 신부의 이 신앙고백은 나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아직도 세상 것들에 매달리고, 무엇 하나 비율 줄 모르는 세속적 갈망의 덫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봤다. 차를 마시고 거리를 걸으면서 나는 비로소, 푸르러가는 5월의 찬란함으로 가슴이 미어졌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가를 잠시나마 맛볼 수 있었다고 할까...

새벽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시간이 고마웠다. 무의식 밑바닥에 있는 찌꺼기들이 맑은 아침 바람으로 걸러짐을 느꼈다. 우리는 아주 먼 곳, 아주 거대한 곳에서 주님을 찾고있는 건 아닐까. 주님은 바로 내 곁에서 내 눈과 맞추고 싶어 기다리시고, 내 손을 잡으려 하시는 것은 아닌가.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추소연.세실리아/엠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서향자.글라라/김초지.마리아/황순이.마리아 최이주.베아따/이규청.제노비아/엠모니카 신용경.그레고리오/배미성.오틀리아/박모란.글라라 원헤리나.헬레나/고공자.벨라뎃다
- ◎기도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율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 구분 | 지향 | 봉헌자 | 구분 | 지향 | 봉헌자 |
|----|--------------|---------|----|------------------|---------|
| 연 | 박판기.세실리아의 영혼 | 국부자.마리아 | 생 | 김상돈.도미닉부제님의 건강회복 | 진엘리사 |
| 연 | 이순애.엘리사벳의 영혼 | 박원상.토마스 | 생 | 허용희.러시아의 건강회복 | 박재례.마리아 |
| 연 | 장현녀.마리아의 영혼 | 박재례.마리아 | | | |
| 연 | 길재호.베로니카의 영혼 | 박재례.마리아 | | | |

◎문◎

“선생님 그 그림은 잘못되었군요. 문에 손잡이가 없군요.”
 그 말에 화가는 대답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거야 보다시피 그문은 인간의 마음에 이르는 문이거든
 그러니까 안에서 열려야 하는 거라네”

간
장
중
지

강은교 클라라.시인

(광고) 본당의 쇄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 | | | |
|--|--|--|---|
| <p>Samurai Sushi</p> <p>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 <p>Bradshaw Optometry</p> <p>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 <p>1.2.3 Auto Body정비</p> <p>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 <p>2019년 8월 25일 출발 요르단+이스라엘 성지순례</p> <p> SHINSEGAE TRAVEL ☎ 510-688-0155</p> |
|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p> <p>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cell</p> | <p>에어컨 수리</p> <p>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 <p>SNOW WHITE DENTAL</p> <p>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p> <p>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
| <p>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p> <p>2335 American River Dr. Ste.100 Sacramento, CA 95825 서은미(안나) (916)600-1936</p> | <p>Hair Story Salon</p> <p>9723 Folsom Blvd. #B Sacramento,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 <p>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p>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 |
| <p>JIMMY KIM GOLF SCHOOL</p> <p>~Sunrise Golf Course~ 6412 Sunrise Blvd. Citrus Heights CA 95610 Jimmy Kim(안토니오) (916)605-6974</p> | <p>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 <p>장의사 W.F.Gormley&Sons Funeral Home</p> <p>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p> | |
| | | | |

